

본당 사목방향
“작게, 낮게, 함께”

주임 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다해]
2025년
3월 22일

제1080호

사순 제3주일

지난주 미사참례 97명

3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서도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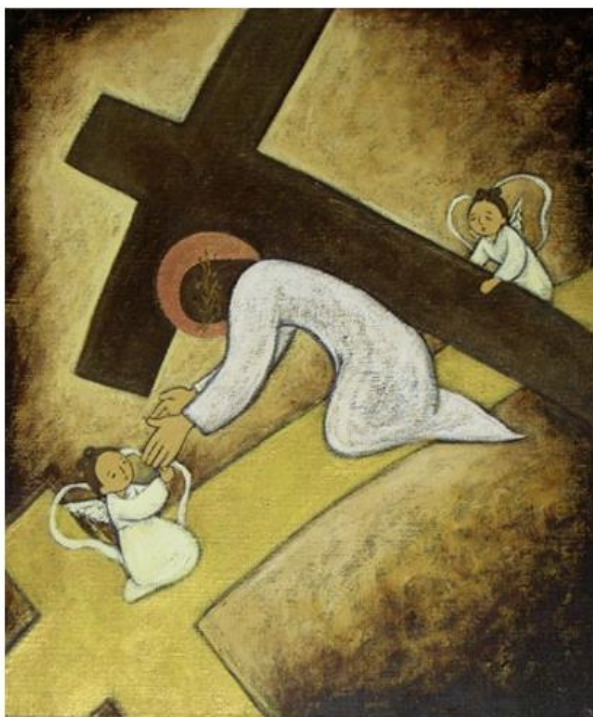
성 요셉 성월 기도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
- ◎ 아멘.

(『가톨릭 기도서』〈개정판〉)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십자가의 길 기도는 아무 때나 바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순시기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 십자가의 길 기도는 교중 미사 전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5일 오후 3시, 석실 성당

3월 22일 오후 3시, 석실 성당

4월 5일 오후 3시, 석실 성당

4월 12일 오후 3시, 석실 성당

이 기간 총구역과 재무 데스크 업무도 십자가의 길 기도 후 시작됩니다.



동촌성당 주임
곽종식(대건안드레아) 신부

말씀 KEY WORD

회개

(메타노이아 μετάνοια)

‘돌아서다’는 의미를 지닌 ‘메타노이아’는 오늘 복음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로 묘사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기다림이나 계획, 혹은 망설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미래가 어찌 되건, 지금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주일의 강론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루카 13,9)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2)라는 뜻을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모세가 만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 앞에서는 “신을 벗어나야만” 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런 하느님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죄와 고통, 죽음의 사슬에서 억압받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려는 하느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인간이 갈망하는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과의 영원한 단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와의 영원한 단절이 바로 지옥이며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를 스스로 결정적으로 거부한 상태가 지옥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느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회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루카 13,8) 오늘 복음에 나타난 포도밭의 무화과나무의 수명은 시한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내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회개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는 오직 지금을 사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루카 13,9)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보는 사순 시기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입당 176 골고타언덕

입당송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리니, 제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제1독서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3,1-8ㄱㄴ.13-15

그 무렵 1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2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 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4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5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6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7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13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14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15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2독서

<모세와 함께한 백성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0, 1-6. 10-12

1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2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3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4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5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6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0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11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2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 1-9

1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처럼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봉 헌 105, 99

영성체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 교중 미사전 십자가의 길 기도예식 >



십자가의 길(라틴어: Via Crucis)은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사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랑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는 십자가의 길 기도예식에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1기 사목위 감사패 수여식 >



총회장 : 강창구 베네딕토 / 총무 : 김신혁 안드레아 / 서기 : 엄윤경 루피나
총구역장 : 오주연 엘리사벳 / 전례위원장 : 황영선 마틸다 / 청소년교육위원장 : 진혜영 루시아
홍보위원장 : 고재걸 바오로 / 선교위원장 : 전준영 알렉산드로 / 재무위원장 : 전은욱 테아
시설위원장 : 윤기영 사도요한

그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11기 사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 반모임 일정

2구역 1반
오늘 미사 후
석실 사무실

■ 류주화 시몬 신부님께서 아버님 장례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방문해주신 신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면서 답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미사 후, 한 가정에 한 팩 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와 쉬는 교우 봉헌식

다음 주 미사 전에 예비자와 쉬는 교우를 위한 봉헌식이 있습니다.
입구에 비치된 봉헌 예식서를 미사 전에 작성하여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봉헌 예식서

_____ 를 봉헌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공동체의 신자 수가 늘어나서 즐겁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 저희의 마음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바꿔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봉헌식이 저희 공동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합니다.

(방법)

전교하고자 하는 분의 성함(성함+세례명)을 적어주세요. 비신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예비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쉬는 교우의 경우에는 그동안 신앙을 멀리 했었지만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친교를 나눠주세요.

그분들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한 온정으로 권유합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서 신앙적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합니다.

3월 22일 본당 일정 안내



수험생 미사와 안수식

이날 미사는 수험생을 위한 지향을
함께 봉헌하고,
신부님의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수험생과 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판공 성사

동관 본당 장천주 다니엘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미사 시간 내내
부활 판공 성사를 주십니다.



본당 아버지의 날

성 요셉 대축일을 기념하여
본당 아버지의 날을 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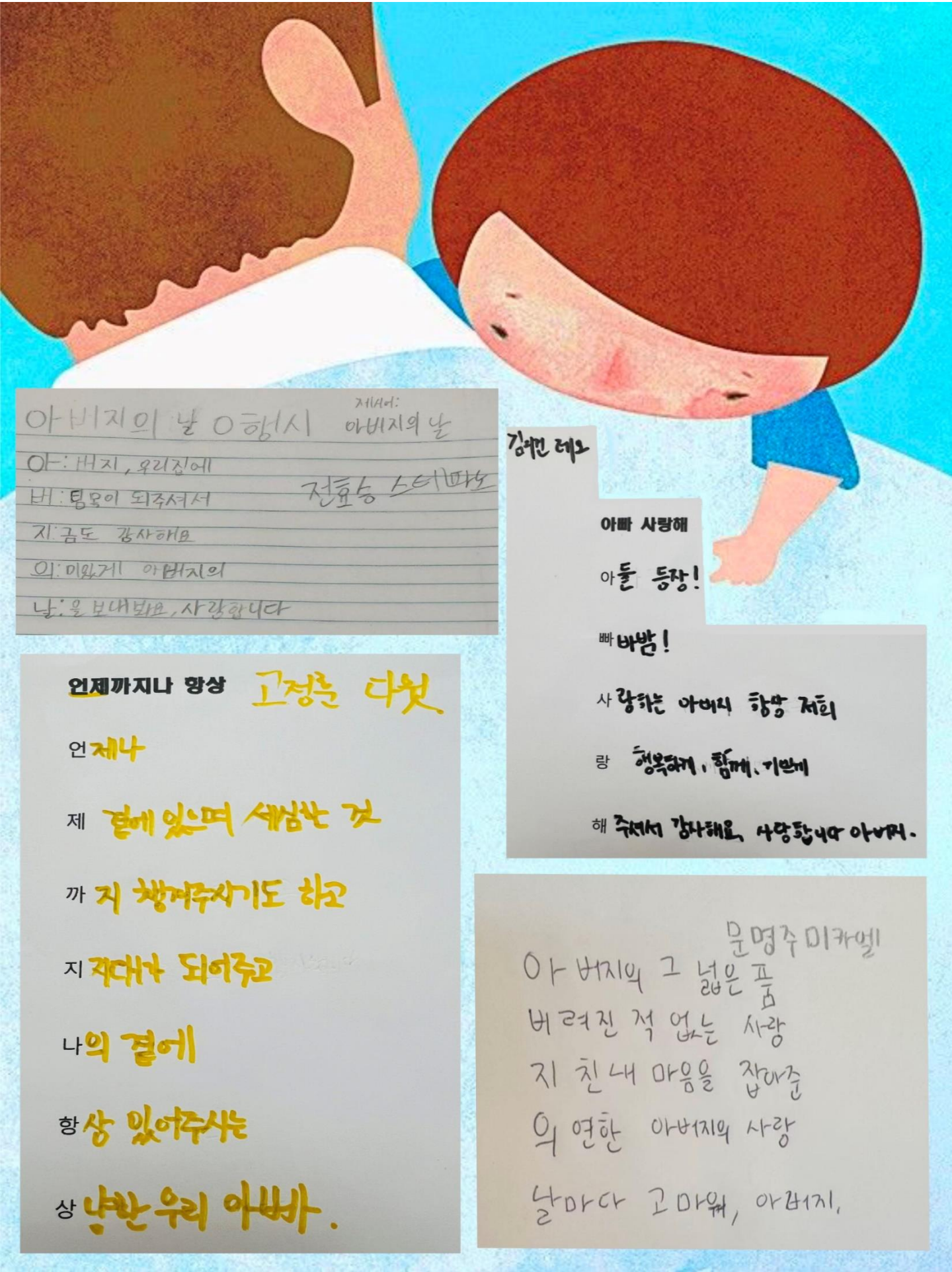
미사 후에는 형제님들을 위한
친교 모임도 예정되어 있으니
형제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친교 식사 : 미사 후 6시 미락



세상의 모든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하루~자유롭게

아버지의 날 축하드립니다.
광저우 한인공동체 주일학교 일동



아빠의 날 〇행시 저서어: 아버지의 날

아: 버지, 우리집에

버: 탐욕이 되주셔서 전효승 스테파노

지금도 감사해요

의미있게 아버지의

날을 보내봐요, 사랑합니다

김민 레오

아빠 사랑해

아들 등장!

빠바밤!

사랑하는 아버지 항상 저희

랑 행복하게, 함께, 기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언제까지나 항상 고정글 다윗

언제나

제 곁에 있으며 세심한 것

까지 행해주사기도 하고

지 적대나 되려주고

나의 곁에

항상 있어주사는

상 넘치는 우리 아빠.

문명주 미카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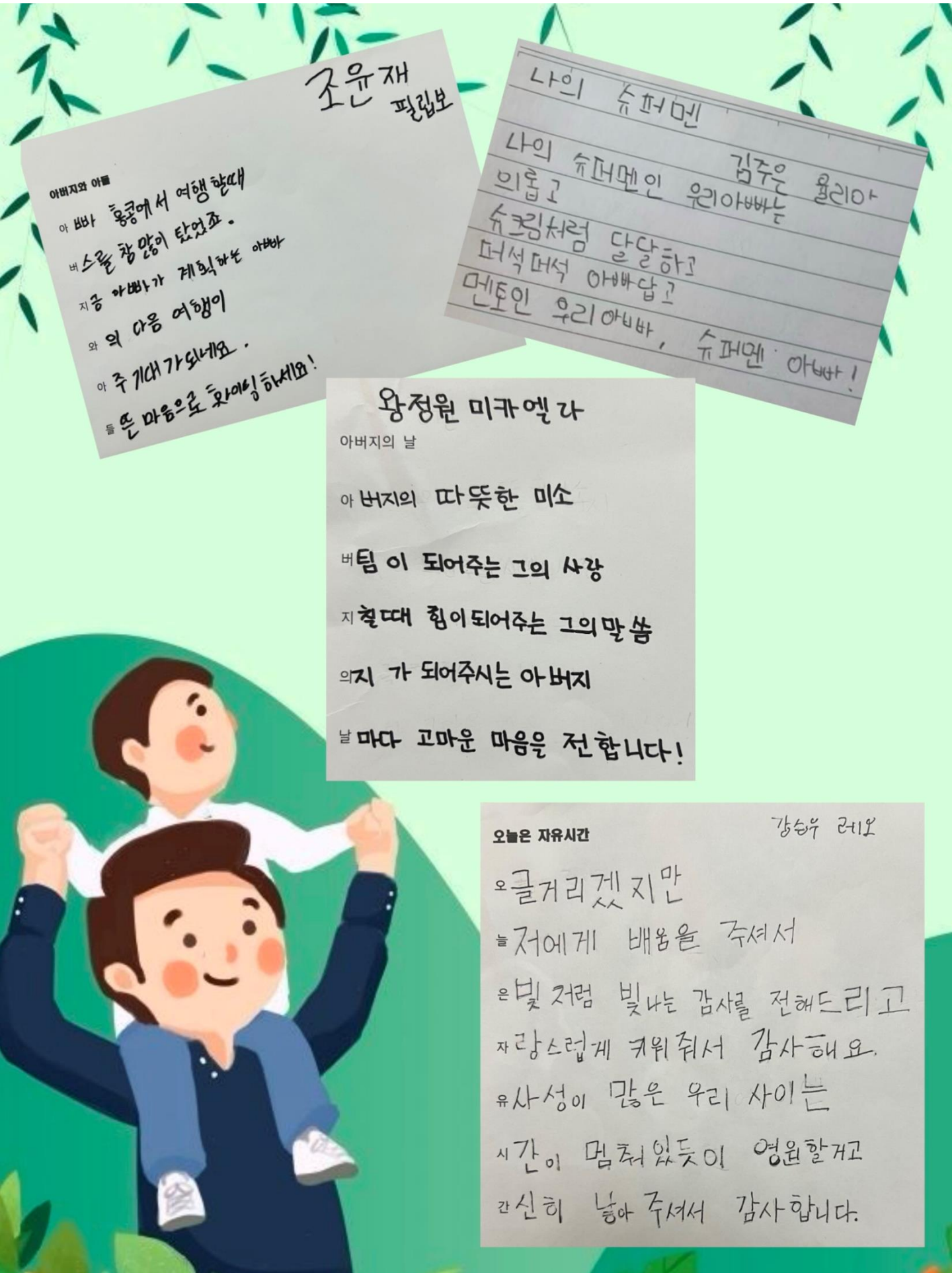
아버지 그 넓은 품

버려진 적 없는 사랑

지 친내 마음을 잡아준

익연한 아버지의 사랑

날마다 고마워, 아버지,



조운재 필립보

아버지와 아들
아빠 홍콩에서 여행할때
버스를 참 많이 탔어요.
지금 아빠가 계획하는 아빠
와 의 다음 여행이
아주 기대가돼요.
들쁜 마음으로 환영하세요!

나의 슈퍼맨

김주은 율리아
나의 슈퍼맨인 우리아빠는
의롭고
슈크림처럼 달달하고
퍼석퍼석 아빠답고
멋진 우리아빠, 슈퍼맨 아빠!

왕정원 미카엘라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버팀이 되어주는 그의 사랑
지칠때 힘이되어주는 그의말씀
의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날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자유시간

강승우 레오

오늘거리겠지만
늘저에게 배움을 주셔서
은빛처럼 빛나는 감사를 전해드리고
자랑스럽게 키워줘서 감사해요.
유사성이 많은 우리 사이는
시간이 멈춰있듯이 영원할거고
간신히 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

김리운 프랑체스카

아무리 생각해도

빠르게 웃길수 있는

사

랑해 농담도 잘하시는

해학적인 매력이야

아버지의 날

김동욱 사도요한

아빠

버금날 회사에서 그렇게

지치도록

의사마냥 뉘세게 일하진마시고

날개 펴시고 편하게 일하시길..

박건하 엘리사 벳

아버지의 날

아버지는늘...

버거킹에서 맛있는아침을사주고,

지식도 넓고,

의미있는 말을하도 해주셔서 귀에서귀가쫄쫄 나올것같지만...

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고마운마음이 든다.

넓은 어깨 따뜻한 손 한면의 소피아.

보진 않지만 포근한 어깨

은도 공도 귀하지만 아빠

어깨보다 귀한건 없는것

깨 닭을 때론

따뜻한 아빠 품에 가리싶다

뜻 깊은 이남

한 마디만 할게요, 솔직히 아빠가 어깨

손 바닥만큼 좋아요.

본당 아버지들에게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음료



본당 아버지의 날을 맞아 총구역에서 형제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 박○○를 준비 하였습니다.
성당 입구에서 한 병 씩 받아가세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주님,
입시를 앞둔 아이들에게
당신의 위로를 나누어 주소서

밤낮없이 공부하는 이 아이들에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당신 안에서 숨통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소서.

한 호흡으로 성실히 공부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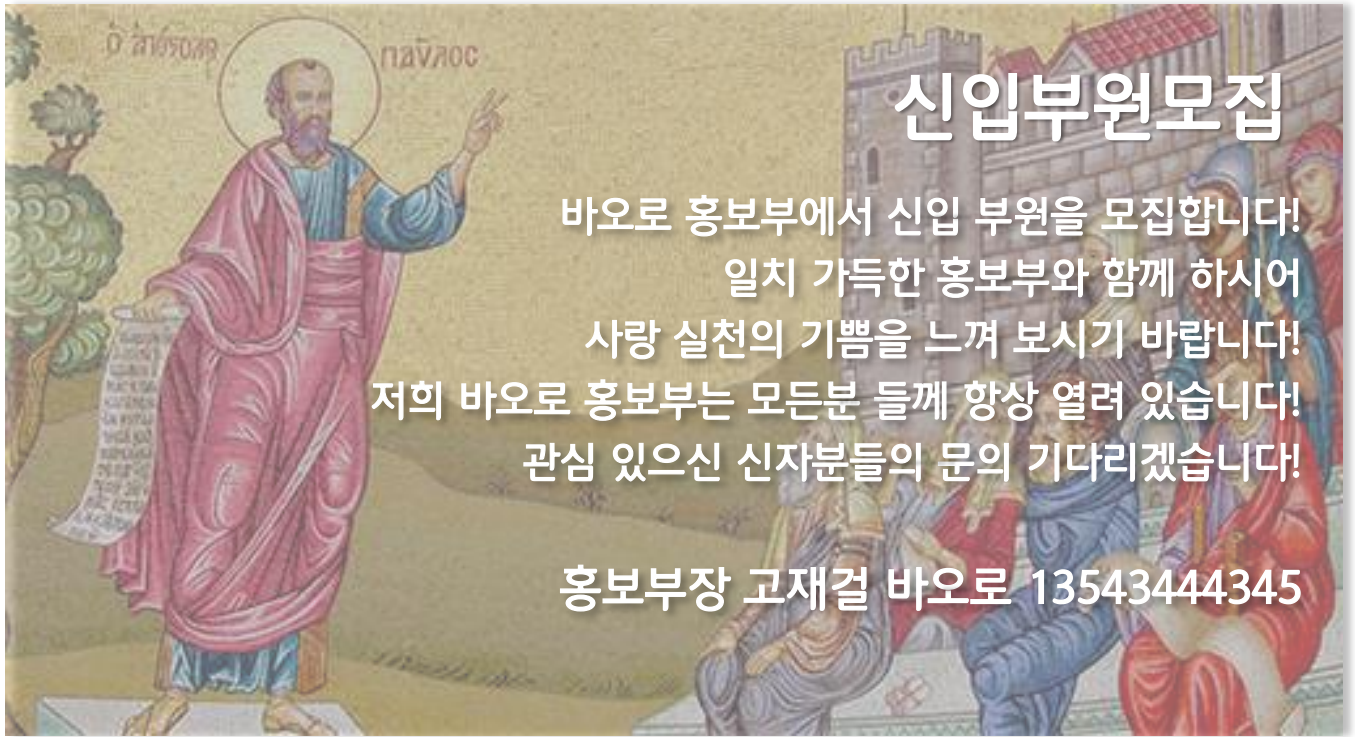
아멘

* 주님, 수험생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려 주소서!



수험생 여러분을
기도하게 응원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을 '바오로 홍보부'로 초대합니다!



신입부원모집

바오로 홍보부에서 신입 부원을 모집합니다!
일치 가득한 홍보부와 함께 하시어
사랑 실천의 기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오로 홍보부는 모든분 들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신자분들의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홍보부장 고재걸 바오로 13543444345

홍보의 주보성인 바오로 사도

천주교 광주 한인공동체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며
서로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바오로 홍보부가 있습니다.
한결 같은 일치가 돋보이는 저희 바오로 홍보부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즐거운
홍보부 모임

홍보부에서는 주보제작, 홍보 책자 발행, 사진 및 동영상촬영,
기념 영상제작, APP관리, 강론 녹취 등의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교우업체 광고주 ~님 ❖

더욱 번창하시는 **2025년** 되시도록
은총이 함께 하는 주보 광고 ! 열렬히 모집합니다.
많은 문의, 신청 바랍니다.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 신청
홍보부 고재걸 바오로 13543444345





2025년 교무금 약정을 시작합니다.

찬미 예수님,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2025년 교무금 봉헌 약정서를 받습니다.

새해 교무금 약정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봉헌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해 봅시다.

- 1 늘 하느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 2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 3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교무금을 책정합니다.
- 4 매월 잊지 않고 교무금을 납입합니다.

교적이 한국에 있고, 가족이 한국에 별도로 교무금을 내고 계시더라도
광저우 공동체에도 일정 금액의 교무금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무금 납입은 가톨릭 신자의 의무이지만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봉헌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 12. 9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주임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총회장 강창구 베네딕토

지난 주 교무금 납부자 (토요일 정오 이후 위챗 수령은 2주 후 게재. ㄱㄴㄷ 순)

김신혁 안드레아, 김재현 이냐시오, 김현진 다니엘, 박은경 로사,
유동훈 다니엘, 이은주 율리아, 이진영 레아, 주인성 시몬, 최우리 효주아녜스, 최현구 요셉

※ 교우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납부 방법

1. 미사 전 현금 납부 - 성당 입구 재무데스크

2. 위챗페이 납부 ID akim1231(김은숙 아가다) / thea721219(전은욱 테아)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를 아십니까?!

① 미사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

✓ 의무 축일 미사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 부활 대축일 (3-4월 : 날짜는 매년 달라짐)

② 금육과 단식

- 금육 : 모든 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 단식 : 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 ☞ 금육과 단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으로 이어져야 함.

③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 성사

-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

④ 적어도 1년에 한 번 영성체

- 부활 대축일

⑤ 교무금

교회 유지비 부담의 의무이며, 매년 일정 금액을 약속하여 납부한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에 교무금을 책정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⑥ 교회의 혼인법 준수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침 / 저녁 기도는 신자의 기본입니다!!

우리 가정의 교무금 상황을 점검해볼까요?!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울 의무가 있다.

(교회법 222조)

“신자들은 주교회이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165조)

교무금은 교구와 본당 운영과 사목, 선교, 자선 사업, 교회 시설 유지와 사제 및 교회 직원 생활비 등에 사용됩니다.

교무금은 개인이 아니라 신자 가정 단위로 매달 얼마를 낼 것인지 책정합니다.

가정 총수입의 얼마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데 통상 ‘30분의 1’ 즉 한 달 30일 중 하루 수입금을 하느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삼십일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외 공동체의 특성상,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납부하더라도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일정 금액 교무금을 내 주어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도 교우 여러분의 교무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무금은 책정하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재무데스크로 가셔서 책정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교무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에도 책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책정하시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 납부는 깜박하지 않고 잘 내고 계신가요?

교무금은 월1회 정기 납부가 원칙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한 달이 금방 지나가지요.

잊지 마시고 꼭 매월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너무 바쁘신 분들은 미리 선납도 가능합니다.

교무금을 책정만 한 채 납부를 잊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金石酷酷 진스쿠쿠

따뜻한 한끼의 소중함!

장영심 모니카

위챗 eelvis123

135-8037-0511

番禺大石朝阳东路162号



소문내주세요

미락

백운구

웬징루에

자리잡았습니다!

OPEN

했어요!

가격은 저렴하게
더 신선하고 더 푸짐하게
모시겠습니다!

광어회 190 / 찰광어 260 / 방어회 270

웬징루

■ KFC

■ 풍무웬성

■ 중화루

미락



오늘의 숙성 **모듬회**

회정식 전문점

회 **포장** 가능합니다.

점심저녁 영업합니다



위챗추가

예약문의

13826129063

휴우

h y u w o o

주장신청 지역에 위치한 아트와 플라워 아뜰리에, 휴우입니다.
휴우는 미술 수업과 프렌치 스타일의 꽃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 수업>

- 기초 과정
- 심화 과정
- 전문가 과정

<미술 수업>

- 킨더반
- 저학년 (초1~초5)
- 고학년 (초6~고등)
- IB art
- IGCSE art

<성인을 위한 미술수업>

- 서양미술사반 '엄마가 소개하는 오르세'
- 취미 미술반

문의는 위챗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챗 아이디 alicia-luby

문의 상담 186-2041-3347



SBC SC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kotra 코트라 지정
청산 컨설팅 수행 기관 선정



MY컨설팅



여러분 곁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그룹이 있습니다!

2004년 창립한 저희 마이컨설팅은 광저우시 공상국의 허가를 득한 전문컨설팅 기업으로서, 광동 성외상투자기업협회 회원이며, 광동성 재정국으로부터 “대리기장허가”를 받은 전문기업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축적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지식 전파 및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설립 전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설립 이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 외/내자법인
- 홍콩법인
- 법인청산
- 경영범위변경

거류증신청

- 취업비자신청
- 가족비자신청

대리기장

- 소규모/일반납세자
- 수출관세환급
- 연말회계결산보고
- 각종절세방안자문

전문허가

- 식품경영허가증
- 수출입권한 신청
- 상표등록

▶ 최근 교민들의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 + 거류비자 신청까지 特惠套餐

▶ 한국전문가 직접상담 해드립니다.

(Tel:13682288114 Wechat: fudan100)

전문 거류비자 대행

주의사항

최근 중국 관련기관에서 외국인 거류허가 심사가 엄격해 지고 있으며,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법인까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안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MY컨설팅

清德投资管理(广东)有限公司

무료상담전화(한국인) 136-8228-8114

TEL: 020) 3803-2588 / 3803-2511

ADD: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华夏路49号津滨腾越大厦北塔1305室

최첨단 의료 설비
최고의 한국의료진 상주진료

광저우 은해치과

3D와 CT를 확인하여
안정된 위치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소아 / 청소년 / 성인교정

은해치과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잇몸 성형 | 라미네이트 | 올세라믹 크라운 심미보철

깨진 치아 때문에, 변색된 치아로 인해
너무 작아 어색한 왜소치아로
자신 있게 웃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해치과에서
자신 있는 미소를 찾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 - 은해치과

예약 및 응급전화 **185-2007-0880**

广州市白云区同和广州大道北2170-2172号
地铁：同和站C出口 南方医院方向 50m前方
同和 지하철역 C출구 남방병원 방향으로 50m


HOURS
진료시간

【진료안내】 화~토 09:00 ~ 18:00

【휴진안내】 매주 월요일/일요일



广州大道北

Y 同和站C出口
云东小区
● 银海口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GUANGZHOU

미사 시간 : 토요일 오후 4시 석실성당
일요일 저녁 7시 석실성당 내 경당
수요일 오전 10시 석실성당 내 경당

미사 장소 : 广州市 越秀区
一德中路 旧部前 56号 石室教堂

+ 고해성사 : 오후3시 반부터
+ 유아세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매월 첫째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APP
gzkorcc.com

✓ 설치전에 구버전 성당APP은 삭제 하시고 설치해주세요!



주보발행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바오로 홍보 위원회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 문의 ,신청
바오로 홍보 위원회 - 고재걸 바오로13543444345